

보고서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김성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원우 연구원(한국경제인협회)

2026.2.5

< 요약 >

□ 청년 은둔화 현상은 ‘개인 문제’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리스크

- 연구진 분석 결과, 전체 청년(19~34세) 중 은둔 청년 비율은 5.2%('24년)로, 약 53.8만 명 수준 추정
- 2024년 기준, 청년 은둔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5.3조 원 추정

□ 청년층(19~34세) 은둔화의 핵심 결정요인은 ‘취업의 어려움’

- 2개년('22년, '24년) 연속 청년층 은둔 생활 이유 1위, ‘취업의 어려움’
- 2024년 기준, 청년층(19~34세) 경제활동상태별 추정 은둔 확률:
‘쉬었음’ 청년(17.8%) > 실업 초기(구직 1개월) 청년(15.1%) > 취업 청년(2.7%)
- 실업 상태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정 은둔 확률 급등:
실업 초기(15.1%) → 구직기간 14개월(24.1%) → 구직기간 42개월(50.1%)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로서 작동 가능

- 청년 은둔화에 따른 추정 사회경제적 손실은 1인당 연 약 983만 원 추정
-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1인당 연 약 342만 원 추정
- 은둔화 해소 시, 1인당 손실(약 983만 원) 대비 투입비용(약 342만 원)이 낮아 순손실 축소 가능

□ ‘쉬었음 → 고립 → 은둔’ 위기 경로를 끊는 연속형 정책 설계 필요

- 사업은 고립·은둔, 쉬었음 각각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년 관점에서 연속 설계
- 고립·은둔은 밀착사례관리(청년미래센터)·공동생활·맞춤형 일경험 중심으로 전국 확대
- 쉬었음은 청년도전지원사업 고도화, 취업형 일경험·온보딩·자산형성 지원으로 재이탈 방지

< 목차 >

1. 서론(p.4)
2. 은둔 청년 실태 분석(p.5)
3.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및 확률 분석(p.14)
4. 청년 은둔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p.24)
5. 결론 및 함의(p.33)

참고문헌(p.36)

[부록] 결정요인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p.39)

1. 서론

-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부각 (Helliwell et al., 2025)
- 사회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방이나 집 등 물리적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은둔은 사회적 고립의 극단적 현상으로 등장(김성아, 2023; 김성아, 2025)
- 청년은 미성년기를 지나 일련의 발달 과업을 완수하며 독립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는 시기이지만,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입직과 결혼, 출산 시기가 점차 지연되고, 불안정한 청년기가 연장(김성아 외, 2023)
 - 더욱이 가구나 직장 등의 보호기제가 약해지면서, 청년은 사회적 위협을 오롯이 홀로 부담(김성아 외, 2024)
- 사회적 고립, 특히 극단화된 은둔은 현세대 청년 집단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사회문제로서, 해결되지 않을 시 중장기적 여파가 상당히 우려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재료로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김성아, 2023; 김성아, 노현주, 2024; 김성아, 강예은, 2025).
 - 동거하는 가족이나 업무상 접촉 이외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가 없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결핍된 상태로 정의
- 은둔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집이나 방 밖으로 잘 외출하지 않는 상태(김성아, 2025)
 - 생계를 위해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NEET)와는 구별
- 소득 수준이나 고용 지위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사회적 자본이 결핍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식화된 것

- 실제로 물밑에 존재하던 고립·은둔 청년 상당수가 수면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이해가 축적되고 있음.
- 최영준 외(2023)는 드러나지 않은 청년의 고립과 은둔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바 있으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이 도입된 현재에 이르러 청년 은둔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현대화할 필요.
- 특히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극단화된 형태로 드러나는 은둔에 주목하고자 함.
- 이 보고서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해 실질적인 규모가 드러나고 있는 은둔 청년의 은둔 결정요인 분석과 은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현대화하는 데에 목적을 둠.

2. 은둔 청년 실태 분석

□ 기준시점: 2022년,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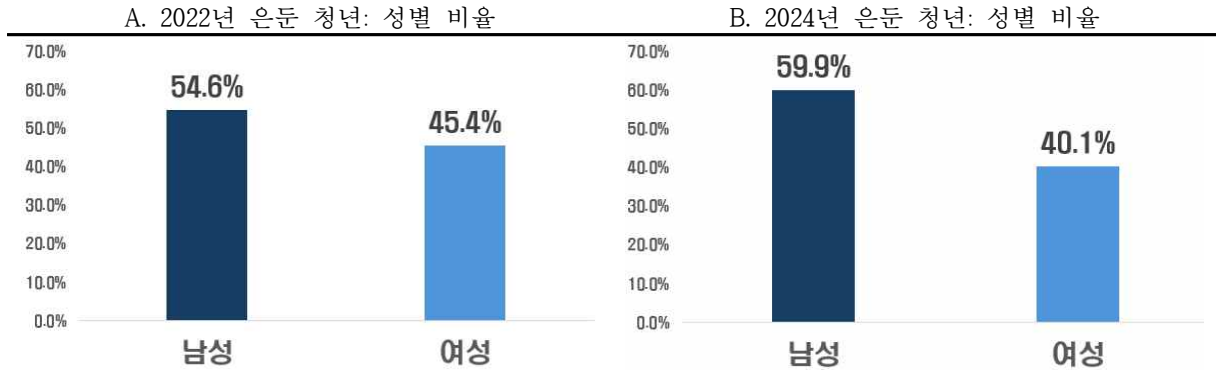
- 2022년 및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은둔 청년의 실태를 분석함.
- 김성아(2025)의 ‘은둔 청년’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기반하여,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한 사유로 은둔한 청년만을 ‘은둔 청년’으로 간주하여 분석함.¹⁾
- ‘22년과 ‘24년 통계수치의 비교 분석은 은둔 청년들의 응답 양상(예: 은둔 청년의 조사 응답률)이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 ‘22년과 ‘24년 통계수치 차이는 은둔 청년 응답 양상의 변화로부터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은둔 청년 실태①: 성별 비교

- (전체 은둔화 비율)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은둔화 비율이 더 높음
 - (‘22년) 전체 은둔 청년 중 남성(54.6%) > 여성(45.4%)
 - (‘24년) 전체 은둔 청년 중 남성(59.9%) > 여성(40.1%)
 - (‘22년 대비 ‘24년) 성비차는 9.2%p(‘22년) → 19.8%p(‘24년)로 확대

1) 임신·출산·장애로 인한 은둔은 비은둔 청년 표본에 삽입하여 분석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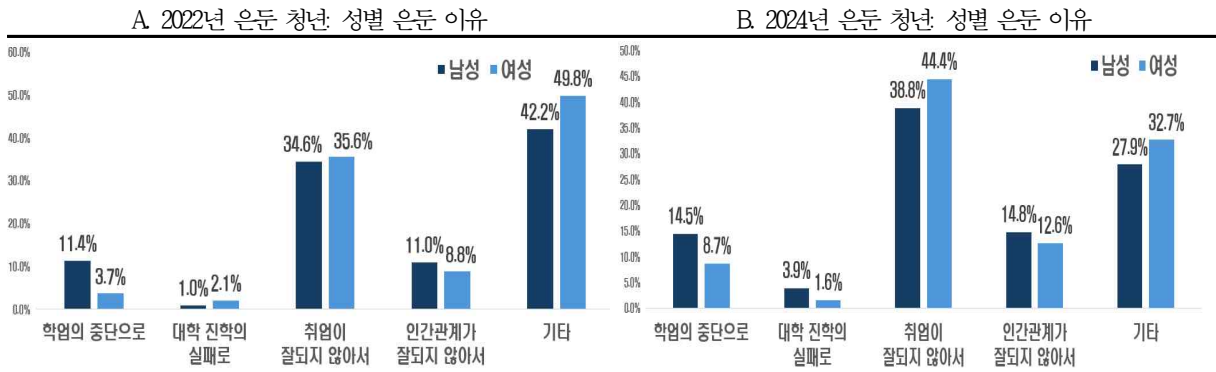
<그림 2-1> 2022년, 2024년 은둔 청년 성별 비교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취업좌절 은둔화 비율) 임신·출산·장애의 사유를 제외한 은둔 청년 표본 내에서, 취업이 잘되지 않음으로 인한 은둔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음
 - ('22년)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비율 여성(35.6%) > 남성(34.6%)
 - ('24년)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비율 여성(44.4%) > 남성(38.8%)
 - ('22년 대비 '24년) 취업좌절에 의한 은둔화 비율: 남성 4.2%p 증가, 여성 8.8%p 증가

<그림 2-2> 2022년, 2024년 성별 은둔 이유 응답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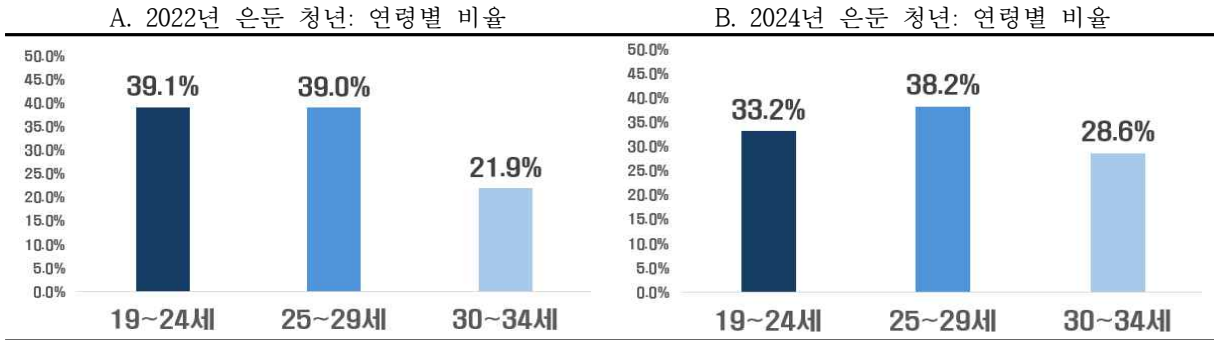
- (시사점) 전반적인 은둔화 비율은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은둔화 이유로서 남녀 모두 취업좌절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은둔 청년 실태②: 연령별 비교

- 높은 노동시장 진입 연령층(25~29세)비율과 노동시장 정착 연령층(30~34세)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짐.

- ('22년) 은둔 청년 중 19~24세(39.1%) > 25~29세(39.0%) > 30~34세(21.9%)
- ('24년) 은둔 청년 중 25~29세(38.2%) > 19~24세(33.2%) > 30~34세(28.6%)
- ('22년 대비 '24년) 전체 은둔 청년 중 30~34세 연령층 비율이 6.7%p 증가(+), 19~24세 5.9%p 감소(-), 25~29세 0.8%p 감소(-)

<그림 2-3> 2022년, 2024년 은둔 청년 연령별 비교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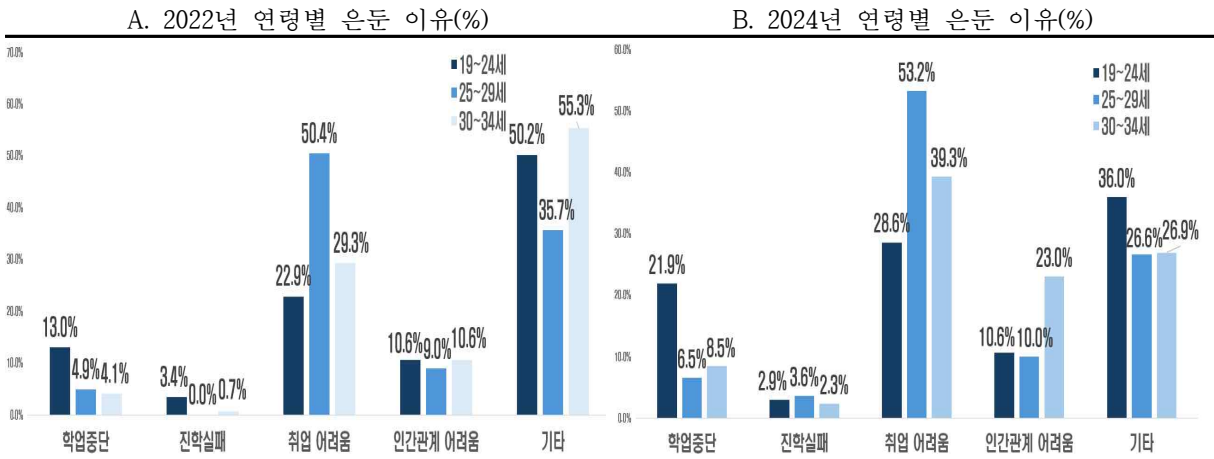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시사점) 은둔 청년 중 노동시장 정착기 연령인 30~34세의 비율 증가가 두드러져,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은둔화가 심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함.

* 30~34세 은둔 청년 중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은둔 비율: 29.3%('22년)→39.3%('24년)로 변화하며 약 10.0%p 증가 (임신·출산·장애의 사유를 제외한 은둔 청년 표본 내 계산)

<그림 2-4> 2022년, 2024년 연령별 은둔 이유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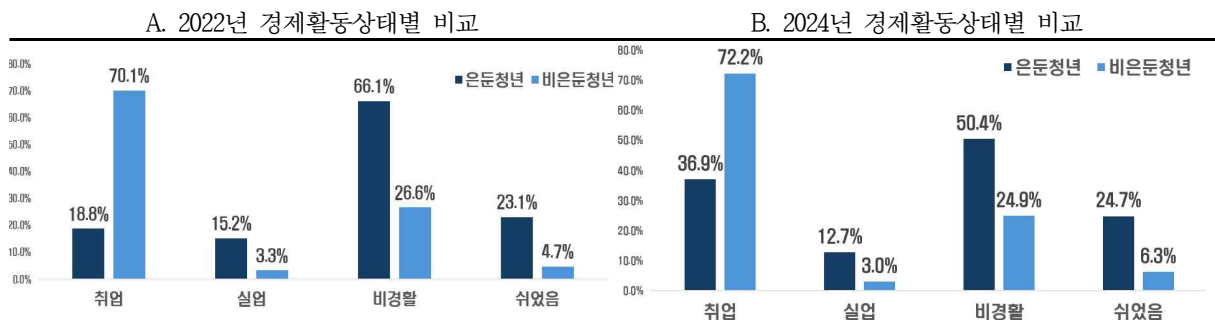
□ 은둔 청년 실태③: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 (취업) 은둔 청년은 비은둔 청년 대비 취업 청년 비율이 약 0.3~0.5배 수준

- ('22년) 은둔 청년 중 취업 청년 비율(18.8%) < 비은둔 청년 중 취업 청년 비율(70.1%)

- ('24년) 은둔 청년 중 취업 청년 비율(36.9%) < 비은둔 청년 중 취업 청년 비율(72.2%)
- ('22년 대비 '24년) 은둔 청년 중 취업 청년 비율은 18.1%p 증가(+), 비은둔 청년 중 취업 청년 비율은 2.1%p 증가(+)
- (실업) 은둔 청년은 비은둔 청년 대비 실업 청년 비율이 약 4.2~4.6배 수준
 - ('22년) 은둔 청년 중 실업 청년 비율(15.2%) > 비은둔 청년 중 실업 청년 비율(3.3%)
 - ('24년) 은둔 청년 중 실업 청년 비율(12.7%) > 비은둔 청년 중 실업 청년 비율(3.0%)
 - ('22년 대비 '24년) 은둔 청년 중 실업 청년 비율은 2.5%p 감소(-), 비은둔 청년 중 실업 청년 비율은 0.3%p 감소(-)
- (비경활) 은둔 청년은 비은둔 청년 대비 비경활 비율이 약 2.0~2.5배 수준
 - ('22년) 은둔 청년 중 비경활 비율(66.1%) > 비은둔 청년 중 비경활 비율(26.6%)
 - ('24년) 은둔 청년 중 비경활 비율(50.4%) > 비은둔 청년 중 비경활 비율(24.9%)
 - ('22년 대비 '24년) 은둔 청년 중 비경활 비율은 15.7%p 감소(-), 비은둔 청년 중 비경활 비율은 1.7%p 감소(-)
- (쉬었음) 비경활 내 하위 경제활동상태인 '쉬었음' 비율은 은둔 청년이 비은둔 청년 대비 약 3.9~4.9배 수준
 - ('22년) 은둔 청년 중 '쉬었음' 비율(23.1%) > 비은둔 청년 중 '쉬었음' 비율(4.7%)
 - ('24년) 은둔 청년 중 '쉬었음' 비율(24.7%) > 비은둔 청년 중 '쉬었음' 비율(6.3%)
 - ('22년 대비 '24년) 은둔 청년 중 '쉬었음' 비율은 1.6%p 증가(+), 비은둔 청년 중 '쉬었음' 비율은 1.6%p 증가(+)

<그림 2-5> 은둔 청년·비은둔 청년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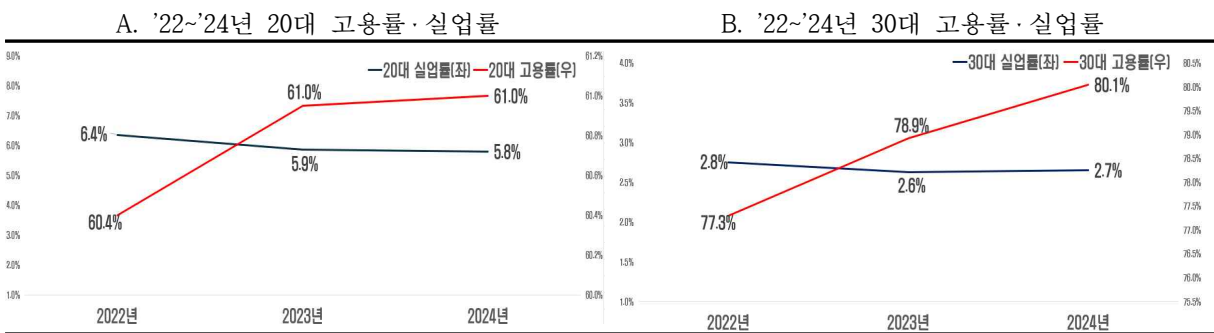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시사점①) 은둔 청년은 비은둔 청년 대비 취업 청년 비율이 낮고, 실업 청년·비경활·쉬었음 비율이 높으며, 이는 청년층 내 은둔화가 확대될 시 청년층의 비근로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 심화 가능성 시사함.

○ (시사점②) 2022년 대비 2024년 은둔 청년의 취업 청년 비율은 상승하고, 실업·비경활 비율이 하락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전반적인 20·30대의 고용지표 개선 흐름이 은둔 청년에게도 유의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함.

– 2022년 대비 2024년 은둔 청년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면서²⁾, 통계상으로 식별된 은둔 청년 자체가 증가한 영향 또한 있을 것이라 추측됨.

<그림 2-6> 2022~2024년 20대·30대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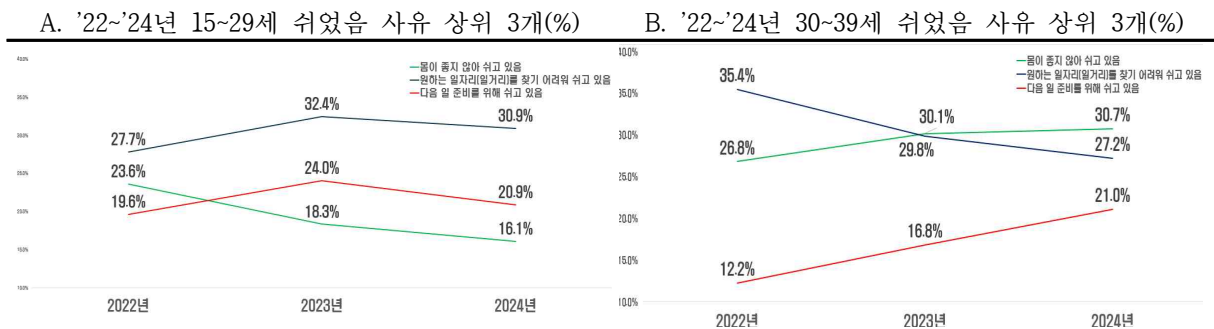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 연도별 고용률, 실업률 수치는 분기별 계절조정 수치의 평균값

○ (시사점③) 은둔 청년의 '쉬었음' 비율이 비은둔 청년 대비 크게 높고, '쉬었음' 청년의 주된 '쉬었음'의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어려움 → 쉬었음 → 은둔화'의 경로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2-7> 2022년~2024년 15~39세 쉬었음 사유 8개 중 상위 3개 항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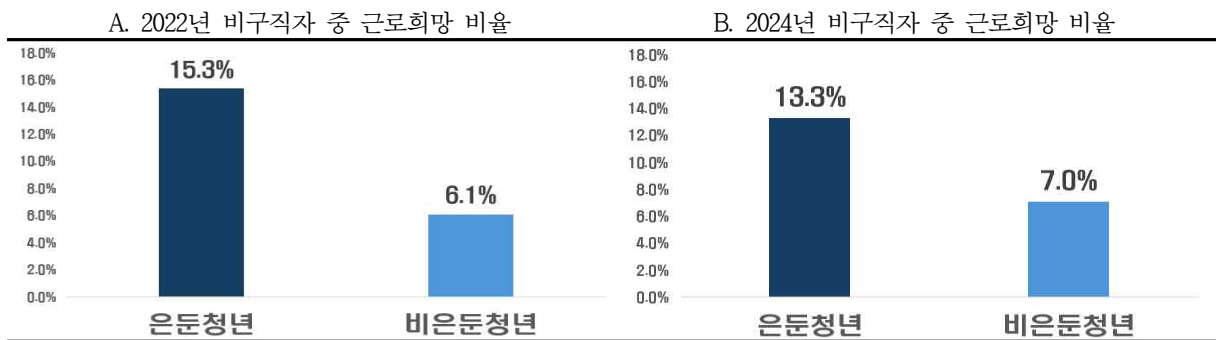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 김성아(2025)는 2022년 대비 2024년 통계상으로 식별된 은둔 청년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이 목소리를 내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함.

□ 은둔 청년 실태④: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

- 은둔 청년 비구직자의 근로희망 비율은 비은둔 청년 비구직자 대비 약 1.9~2.5배 높음
 - ('22년) 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15.3%) > 비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6.1%)
 - ('24년) 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13.3%) > 비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7.0%)
 - ('22년 대비 '24년) 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은 2.0%p 감소(-), 비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비율 0.9%p 증가(+)

<그림 2-8> 은둔 청년·비은둔 청년 비구직자 중 근로희망 응답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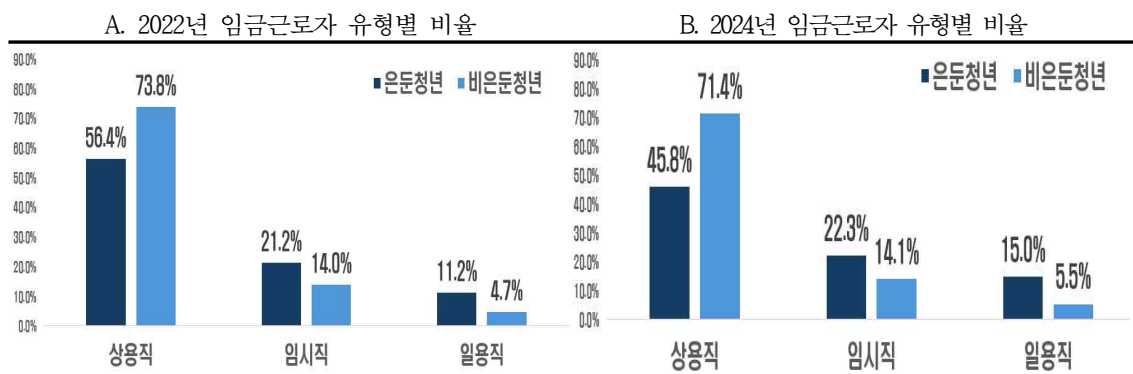
- (시사점) 은둔 청년은 '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은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둔 청년 역시 '보통의 삶'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함(청년재단, 2023)

□ 은둔 청년 실태⑤: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비율

- (임금근로자) 은둔 청년 상용직 비율은 비은둔 청년 상용직 비율 대비 0.6~0.8배 수준인 반면,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약 1.7~1.9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은둔 청년은 비은둔 청년 대비 임시직·일용직 비율이 높음
-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약 88.7%('22년)→83.1%('24년)으로 5.6%p 감소했으며,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92.5%('22년)→91.0%('24년)로 1.5%p 감소
 - ('22년 상용직)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56.4%)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73.8%)

- ('22년 임시직·일용직)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율 (32.4%)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율(18.7%)
- ('24년 상용직)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45.8%)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71.4%)
- ('24년 임시직·일용직)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율 (37.3%)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율(19.6%)
- ('22년 대비 '24년 ①)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10.6%p 감소 (-),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4.9%p 증가(+)
- ('22년 대비 '24년 ②)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2.4%p 감소(-),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0.9%p 증가(+)

<그림 2-9> 은둔 청년·비은둔 청년 임금근로자 비교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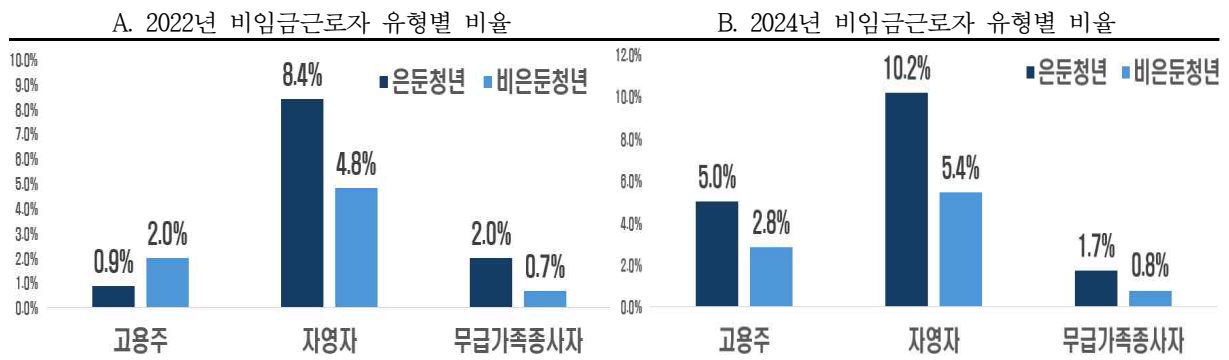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비임금근로자) 은둔 청년 고용주 비율은 '22년 비은둔 청년 고용주 비율 대비 약 0.5배에서 약 1.8배로 증가하였고, 자영자 비율·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약 1.9배
- 은둔 청년 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1.3%('22년)→16.9%('24년)으로 5.6%p 증가했으며,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7.5%('22년)→9.0%('24년)로 1.5%p 증가
 - ('22년 고용주) 은둔 청년 근로자 중 고용주 비율(0.9%)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고용주 비율(2.0%)
 - ('22년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10.4%)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5.5%)
 - ('24년 고용주) 은둔 청년 근로자 중 고용주 비율(5.0%)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고용주 비율(2.8%)

- ('24년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11.9%) >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6.2%)
- ('22년 대비 '24년 ①) 은둔 청년 근로자 중 고용주 비율 4.1%p 증가(+),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1.5%p 증가(+)
- ('22년 대비 '24년 ②) 비은둔 청년 근로자 중 고용주 비율은 0.8%p 증가(+),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0.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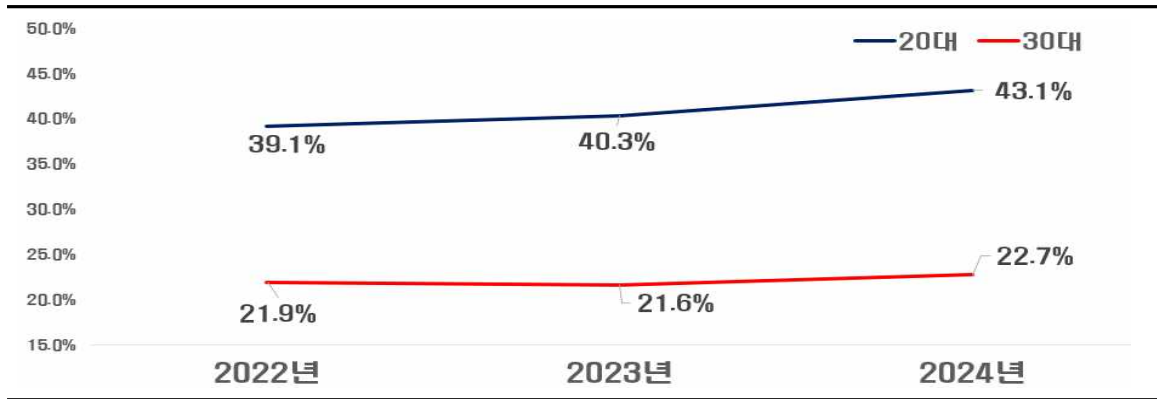
<그림 2-10> 은둔 청년·비은둔 청년 비임금근로자 비교 (임신·출산·장애 사유를 제외한 은둔)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시사점①) 은둔 청년 임금근로자는 비은둔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1차 노동시장에 가까운 상용직 비율은 낮고, 2차 노동시장에 가까운 임시직·일용직 비율은 높아 임금근로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함
- (시사점②) 은둔 청년 비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1차 노동시장에 가까운 고용주 비율이 은둔 청년이 비은둔 청년에 비해 소폭 높지만, 동시에 2차 노동시장에 가까운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은둔 청년이 더 크게 높아 비임금근로의 질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함
 - * '24년 은둔 청년 중 고용주 비율(5.0%) - 비은둔 청년 중 고용주 비율(2.8%) = 2.2%p
 - * '24년 은둔 청년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11.9%) - 비은둔 청년 중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6.2%) = 5.7%p
- (시사점③) '22년 대비 '24년 은둔 청년의 상용직 비율은 감소(-10.6%p)하고, 임시직·일용직은 증가(+4.9%p)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20·30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된 흐름이, 비은둔 청년에 비해 은둔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2-11> 2022~2024년 20대·30대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연 1회, 8월 기준)

* 비정규직 비율: (해당 연령대 비정규직 근로자수 ÷ 해당 연령대 임금근로자수)×100(%)

□ 실태 분석의 한계

- 2022년 대비 2024년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지원 사업 확대로부터 은둔 청년의 응답 및 식별 규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두 시점의 표본을 동일 모집단에서 추출된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해당 실태 분석은 단순 기초 통계 비교 분석으로서, 취업상태나 가구 여건 등 개별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기에 변수들의 인과적 해석에는 한계가 존재함.
- 청년층 은둔의 결정요인을 보다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의 관심변수의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회귀분석 등의 계량 방법론이 필요함.

3.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및 확률 분석

□ 기준시점: 2024년

- 2024년 단일연도의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 은둔화 결정요인 및 경제활동상태별 은둔 확률 추정 분석

□ 분석 데이터

- 분석데이터 중 피설명변수인 은둔 청년 유무는 청년 삶 실태조사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되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장애나 임신, 출산 등이 아닌 경우로 함.

<표 3-1> 피설명변수(은둔 청년 유무)의 정의

피설명변수	
변수	정의
은둔 청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되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장애나 임신, 출산 등이 아닌 경우(=1) 이외(=0)

* 주: 김성아(2025)의 정의를 준용

- 분석데이터 중 설명변수는 5가지(취업, 인간관계, 인구학적 특성, 교육, 가구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사회지지체계부족’ 변수는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다음 귀하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과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이라고 답한 표본
 - ‘교류부족’ 변수는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② 없음”이라고 답한 표본
 - 취업 청년 변수는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어도 종사상 지위가 실업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자 또한 취업 청년으로 간주한 후 분석

<표 3-2> 설명변수 목록

설명변수					
구분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설명
취업	구직기간	단위: 개월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여성(=0), 남성(=1)
	실업 청년	실업 청년(=1) 이외(=0)		연령 1	만 19~24세(=0) 만 25~29세(=1) 만 30~34세(=0)
	비경제 활동	비경제활동(=1) 이외(=0)			
	2차 노동시장	임시직·일용직·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1) 이외(=0)			연령 2
	쉬었음	비경활 중 쉬었음(=1) 이외(=0)			
인간관계	사회지지 체계부족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 부족(=1) 이외(=0)	교육	학력 1	고졸 이하 (=0) 대학 재학·휴학(=1) 대학 졸업 이상(=0)
				학력 2	고졸 이하 (=0) 대학 재학·휴학(=0) 대학 졸업 이상(=1)
	교류부족	대면·인터넷(SNS)·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 하는 사람 부족(=1) 이외(=0)		가구 환경	(연소득)
자산	균등화 가구 자산 * 단위: 1천만 원				
	부모동거	부모동거(=1) 이외(=0)			

* 자료: 집필진 작성

* 균등화 가구 소득 및 자산은 1000으로 나눈 이후,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해 로그 스케일링함

○ 분석데이터 중 수치형 변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음

<표 3-3> 수치형 변수 기초통계량

수치형 변수	단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표본)구직기간	1개월	15,098	0.2	1.8	0.0	60.0
└ (미취업 청년)구직기간	1개월	526	6.5	7.4	1.0	60.0
균등화 가구 소득	1천만원	15,098	3.6	2.3	0.0	79.4
균등화 가구 자산	1천만원	15,098	18.4	28.8	0.0	1,789.8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개인가중치를 고려한 값, 표본크기: 15,098, 구직기간은 연속변수가 아닌 이산변수

* (전체표본)구직기간: 모든 경제활동상태의 구직기간, (미취업 청년)구직기간: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

○ 분석데이터 중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와 같음

<표 3-4> 범주형 변수 기초통계량

범주형 변수	단위	구분	N	절대적 규모 (크기)	상대적 규모 (전체 대비 비율)
은둔	명, %	은둔 청년	788	504,960	5.2%
		비은둔 청년 ³⁾	14,310	9,258,741	94.8%
경제활동상태	명, %	경제활동	11,069	7,204,484	73.8%
		└ 취업 청년 ⁴⁾	10,543	6,866,953	70.3%
		└ 1차 노동시장	7,615	5,049,875	51.7%
		└ 2차 노동시장	2,928	1,817,078	18.6%
		└ 실업 청년	526	337,530	3.5%
		비경제활동	4,029	2,559,217	26.2%
		└ 쉬었음	1,062	704,292	7.2%
└ 쉬었음 외	2,967	1,854,925	19.0%		
사회지지체계	명, %	사회지지체계부족	485	288,336	3.0%
		사회지지체계구비	14,613	9,475,365	97.0%
교류	명, %	교류부족	1,184	752,644	7.7%
		교류유지	13,914	9,011,057	92.3%
성별	명, %	남성	7,426	5,131,914	52.6%
		여성	7,672	4,631,787	47.4%
연령	명, %	19~24세	5,468	3,179,375	32.6%
		25~29세	5,105	3,310,331	33.9%
		30~34세	4,525	3,273,995	33.5%
학력	명, %	고졸 이하	2,710	1,700,645	17.4%
		대학 재학·휴학	3,400	2,036,549	20.9%
		대학 졸업 이상	8,988	6,026,508	61.7%
부모동거	명, %	부모와 거주	8,013	5,315,942	54.4%
		부모와 비거주	7,085	4,447,759	45.6%

*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개인가중치를 고려한 값, 표본크기: 15,098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이분형 결과변수의 발생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빗(Probit) 회귀모형을 활용.

< 프로빗 회귀모형 및 설명변수 >

$$P(Y=1|X) = \Phi(X^T\beta), \quad \Phi(z) = \int_{-\infty}^z \frac{1}{\sqrt{2\pi}} e^{-t^2/2} dt$$

Y: 은둔 청년(=1), 이외(=0)

X: ln(균등화 가구 소득), ln(균등화 가구 자산), 구직기간×경제활동상태(상호작용항)⁵⁾
경제활동상태, 사회지지체계부족, 교류부족, 성별, 연령, 학력, 부모동거 여부

* 이분산-강건 표준오차 적용해 비대칭 잔차 보정

3) 임신·출산 장애로 인한 은둔은 비은둔 청년 표본에 산입하여 분석하였으며, 해당 표본을 제외한 분석은 강건성 검정으로 진행함.
4) 취업 청년은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없더라도 종사상지위가 실업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자 또한 취업 청년으로서 간주하여, '지난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지난주 일시 휴직자'가 포함됨.
5) 구직기간은 실업 이외의 경제활동상태에서 0이고 실업 상태에서는 1이상이므로 경제활동상태와의 상호작용항을 첨가함.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모형①에서는 경제활동상태를 취업 청년, 실업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3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며, 모형②에서는 취업 청년을 1차 노동시장(상용직·고용주), 2차 노동시장(임시직·일용직·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으로 세부 분류하여 경제활동상태를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함.
- 한편, 모형③과 모형④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쉬었음’과 ‘쉬었음 외’로 세분화하여, ‘쉬었음’ 상태가 청년 은둔화의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함.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5>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회귀결과

구분	변수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취업 관련	구직기간	0.027 (0.011) **	0.026 (0.011) **	0.027 (0.011) **	0.026 (0.011) **
	실업	0.826 (0.118) ***	1.004 (0.123) ***	0.825 (0.118) ***	1.002 (0.122) ***
	비경제활동	0.699 (0.057) ***	0.891 (0.066) ***	-	-
	└ 쉬었음	-	-	0.936 (0.070) ***	1.125 (0.078) ***
	└ 쉬었음 외	-	-	0.546 (0.068) ***	0.740 (0.075) ***
	2차 노동시장	-	0.451 (0.072) ***	-	0.447 (0.072) ***
인간관계 관련	사회지지체계부족	0.426 (0.091) ***	0.422 (0.092) ***	0.411 (0.092) ***	0.407 (0.092) ***
	교류부족	0.509 (0.062) ***	0.508 (0.063) ***	0.498 (0.062) ***	0.496 (0.062) ***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1)	0.098 (0.048) **	0.114 (0.048) **	0.084 (0.048) *	0.100 (0.048) **
	연령1 (25~29세)	0.196 (0.068) ***	0.219 (0.068) ***	0.203 (0.068) ***	0.226 (0.069) ***
	연령2 (30~34세)	0.217 (0.075) ***	0.250 (0.076) ***	0.224 (0.075) ***	0.257 (0.076) ***
교육	학력1 (대학 재학·휴학=1)	-0.365 (0.084) ***	-0.384 (0.083) ***	-0.306 (0.085) ***	-0.328 (0.084) ***
	학력2 (대학 졸업 이상=1)	-0.169 (0.061) ***	-0.136 (0.061) **	-0.162 (0.061) ***	-0.129 (0.062) **
가구 환경	ln(균등화 가구 소득)	-0.348 (0.071) ***	-0.300 (0.070) ***	-0.337 (0.071) ***	-0.289 (0.070) ***
	ln(균등화 가구 자산)	-0.072 (0.025) ***	-0.074 (0.025) ***	-0.068 (0.025) ***	-0.070 (0.025) ***
	부모동거 (부모동거=1)	0.339 (0.057) ***	0.325 (0.059) ***	0.315 (0.058) ***	0.301 (0.059)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5,098

- 제반 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변수별 유의수준과 해석은 아래와 같음
 - (구직기간)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준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증가하여 청년 은둔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시사
 - (실업)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모형①, ③: 실업 상태일 때,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모형②, ④: 실업 상태일 때, 1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모형①, ②에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크고, 모형③, ④에서는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보아, 노동시장 이행 실패가 청년 은둔화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함.
 - (비경제활동) 모형①, ②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모형①: 비경활 상태일 때,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모형②: 비경활 상태일 때, 1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모형①, ②에서 계수의 절대값이 2번째로 크게 추정되어 다른 요인 대비 은둔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2번째로 큰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동시장 참여 경로에서의 단절이 은둔 위험을 크게 높일 가능성을 시사함.
 - (비경활-쉬었음) 모형③, ④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모형③: '쉬었음' 상태일 때,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하며, 비경활 중 '쉬었음' 외 대비 회귀계수가 약 0.39 높음
 - 모형④: '쉬었음' 상태일 때, 1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비경활 중 '쉬었음' 외 대비 회귀계수가 약 0.39 높음
 - 모형③, ④에서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크고,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청년층 '쉬었음' 상태의 사유 1위가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인 것으로 보아, '취업의 어려움 → 쉬었음 → 은둔화'의 경로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함.

- (2차 노동시장) 모형②, ④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모형②: 2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 상태일 때, 1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 대비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단순 취업의 유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질 또한 청년 은둔화 여부에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⁶⁾
- (사회지지체계부족)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사회지지체계가 부족할 때,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경제적 위기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기관 등을 통한 도움 체계의 유무가 청년 은둔화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 끼칠 가능성 시사함.
- (교류부족)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교류가 부족한 상태일 때,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증가(+).
- 사회적 교류의 유무가 청년 은둔화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 끼칠 가능성 시사함.
- (성별) 모형①, ②, ④에서 유의수준 5%, 모형③에서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은둔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선행연구(임형문 외 2020; 김혜원, 2022)와 일치하는 결과
- (연령1, 연령2)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 청년층 내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은둔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
- 노동시장 진입·이행 연령대(25~34세)에 취업 및 자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기대 부응 실패 시 은둔할 가능성 시사
- * 앞 실태 분석에서 19~24세 은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비율로서 취업상태·가구여건 등 구성 차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 반면 회귀분석(통제 후)에서는 청년층 내 연령 증가에 따른 은둔 확률 상승이 유의하게 확인됨.
- (학력1, 학력2) 학력1은 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며, 학력2는 모형 ①, ③에서 1% 유의수준, 모형 ②, ④에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 학력변수 회귀계수의 값이 고졸 이하 > 대학 졸업 > 대학 재학·휴학 순으로 높음.
- 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유지의 유불리함, 제도권 네트워크 유무,

6) (안선경·김소연·정익중, 2023) 청년 고립은둔 유형 중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경험 있음”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취업좌절형’에서 96%, ‘복합좌절형’에서는 98%로 추정되며, 청년 고립-은둔 4가지 유형 중 ‘취업좌절형’은 표본의 32.0%로서 첫 번째로, ‘복합좌절형’은 표본의 29.3%로서 두 번째로 많음.

대학 졸업에 따른 취업 압박 등 학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이 은둔 확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시사함.

- (균등화 가구 소득·자산)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함.
-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은둔 확률이 유의하게 낮음
- 가구 소득·자산이 낮을수록 교육·구직활동 등 재도전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고, 생활 불안·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은둔 확률이 커질 가능성 시사함.
- (부모동거) 모형①, ②, ③, ④에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함.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유의하게 은둔 확률이 높음
- ‘취업→독립’ 단계에서 취업실패로 인해 독립에 실패하여 부모와 거주하며 은둔하거나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부모 동거 비율이 높다는 점 등 1인 가구가 아닌, 2인 이상의 가구에서도 청년 은둔화가 나타남을 시사함.

□ 취업 관련 변수에 따른 청년 은둔 확률 추정

- 2022년,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 은둔화의 주요 원인 1위는 ‘취업의 어려움’.⁷⁾
 - * 2022년: 취업의 어려움(35.0%) > 인간관계 어려움(10.0%) > 학업중단(7.9%)
 - * 2024년: 취업의 어려움(32.8%) > 인간관계 어려움(11.1%) > 학업중단(9.7%)
- 이에 앞선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취업 관련 변수들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은둔 확률을 추정함.
- 실업의 경우, 다른 경제활동상태와 달리 구직기간에 따라 추정 은둔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 3-6>에서는 ‘실업 초기 은둔 확률’은 구직기간 최솟값(1개월)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실업 상태에서 구직기간 변화에 따른 은둔 확률의 추이는 별도로 추가 분석함.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7) 해당 비율은 임신·출산·장애의 사유로 인한 은둔이 은둔 생활 이유에 포함된 수치.

<표 3-6>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구분	경제활동상태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취업 관련	실업 초기(구직 1개월)	0.151 (0.024) ***	0.152 (0.024) ***	0.150 (0.023) ***	0.151 (0.023) ***
	비경제활동	0.099 (0.006) ***	0.099 (0.006) ***	-	-
	└ 쉬었음	-	-	0.178 (0.014) ***	0.178 (0.014) ***
	└ 쉬었음 외	-	-	0.069 (0.006) ***	0.069 (0.006) ***
	취업	0.027 (0.002) ***	-	0.027 (0.002) ***	-
	└ 1차 노동시장	-	0.019 (0.002) ***	-	0.019 (0.002) ***
	└ 2차 노동시장	-	0.051 (0.005) ***	-	0.051 (0.005) ***

* 자료: 집필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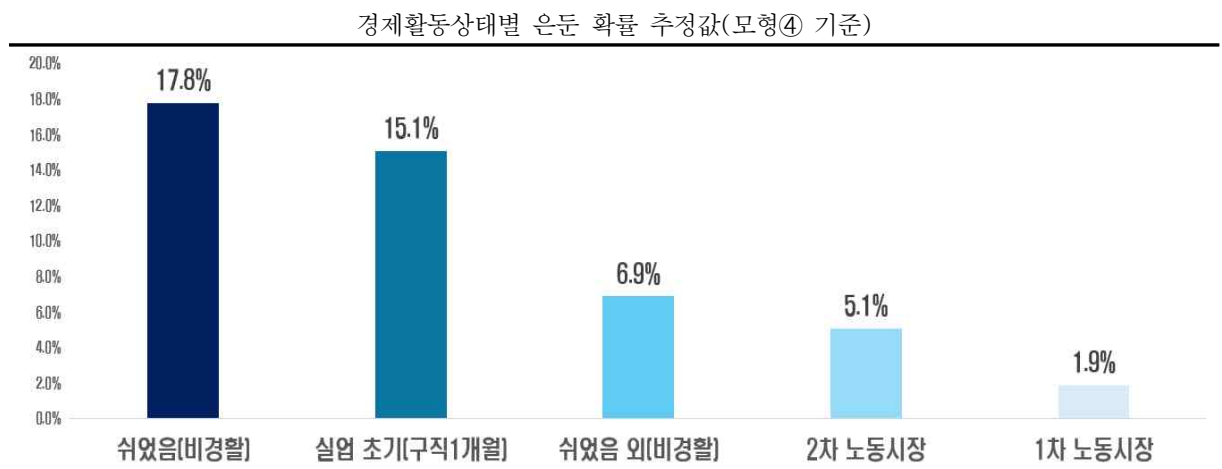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실업 초기의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구직기간 값을 표본 내 최솟값인 1개월로 고정하여 추정

* 실업 외 변수들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값을 0(개월)로 고정 후 추정

- (실업 초기) 실업 초기 청년의 은둔 확률은 약 15.0~15.2%로 추정되며, 취업 청년(2.7%) 대비 약 12.3~12.5%p 높고 약 5.6배 수준으로 추정됨.
-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청년의 은둔 확률은 약 9.9%로 추정되며, 취업 청년(2.7%) 대비 약 7.2%p 고 약 3.7배 수준으로 추정됨.
- (2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의 은둔 확률은 약 5.1%로 추정되며, 1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1.9%) 대비 약 3.2%p 높고 약 2.7배 수준으로 추정됨.
- (비경활-쉬었음) 비경제활동 중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은 약 17.8%로 추정되며, 비경제활동 중 쉬었음 외(6.9%) 대비 약 2.6배, 취업 청년(2.7%) 대비 약 6.6배, 1차 노동시장 취업 청년(1.9%) 대비 약 9.4배 수준으로 추정됨.

<그림 3-1>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 자료: 집필진 작성

* 실업 초기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구직기간 최솟값(1개월) 기준

○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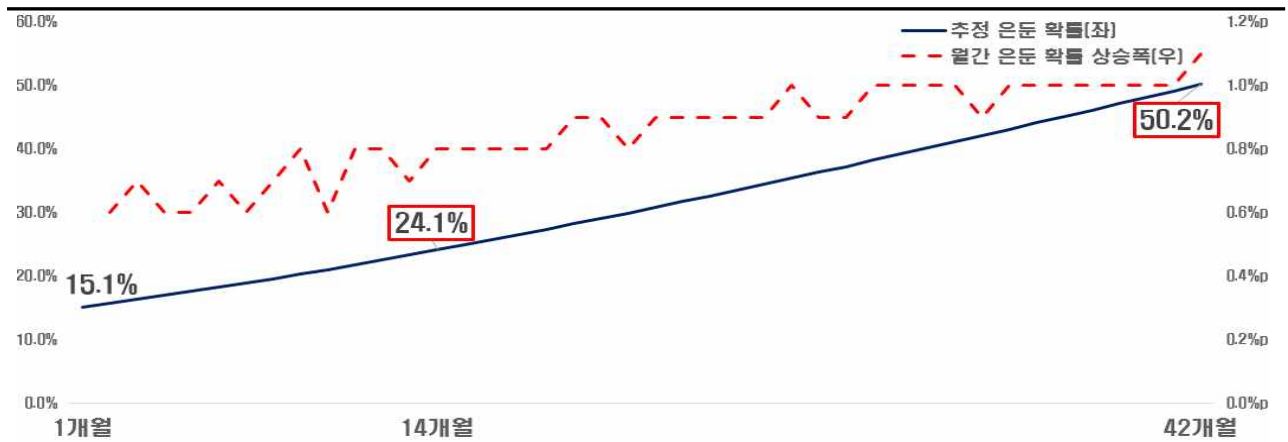
<표 3-7>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경제활동 상태	구직기간 (단위: 개월)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실업	1개월	0.151 (0.024) ***	0.152 (0.024) ***	0.150 (0.023) ***	0.151 (0.023) ***
	6개월	0.183 (0.021) ***	0.183 (0.021) ***	0.183 (0.021) ***	0.182 (0.021) ***
	12개월	0.226 (0.029) ***	0.225 (0.028) ***	0.226 (0.029) ***	0.225 (0.029) ***
	14개월	0.241 (0.034) ***	0.240 (0.033) ***	0.242 (0.034) ***	0.240 (0.033) ***
	18개월	0.274 (0.046) ***	0.271 (0.046) ***	0.275 (0.046) ***	0.273 (0.046) ***
	24개월	0.327 (0.069) ***	0.322 (0.068) ***	0.329 (0.069) ***	0.325 (0.069) ***
	30개월	0.383 (0.095) ***	0.377 (0.094) ***	0.387 (0.095) ***	0.381 (0.095) ***
	36개월	0.442 (0.121) ***	0.435 (0.121) ***	0.448 (0.122) ***	0.440 (0.121) ***
	41개월	0.493 (0.143) ***	0.484 (0.142) ***	0.499 (0.143) ***	0.490 (0.142) ***
	42개월	0.503 (0.147) ***	0.494 (0.146) ***	0.510 (0.147) ***	0.500 (0.146)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그림 3-2>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그래프(모형 ①~④의 평균값 기준)



* 자료: 집필진 작성

* 월간 은둔 확률 상승 폭(%p) = 구직기간 (t)시점 은둔확률 - 구직기간 (t-1)시점 은둔확률

- (구직기간) 실업 상태에서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정 은둔확률이 1개월당 평균 약 0.9%p씩 상승하는 것으로 관측됨.
-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확률 상승 폭이 증가하는 ‘가속 증가 구조’가 관측되며, 이는 실업 청년의 은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의 조기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청년층 중 장기실업⁸⁾ 청년(12개월 이상)의 추정 은둔 확률은 약 22.6%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 만 20~34세 청년층의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 기간의 평균값이 14개월임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취업준비생의 기대 은둔 확률은 약 24.1% 내외로 추정됨⁹⁾.
- 실업 청년의 은둔 확률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는 구직기간은 3.5년(42개월)으로 추정되며, 이는 장기 구직 청년에게 구직 지원 정책과 더불어 은둔화 방지를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결정요인 및 은둔 확률 추정 분석의 한계

- 본 분석은 가용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2024년 단일 시점(횡단면) 분석으로 진행했으며, 이에 변수 간 연관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식별하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음.
- 패널데이터가 부재하여 ‘취업 → 쉬었음 → 고립·은둔’과 같은 상태 전환 경로를 개인 단위로 추적 및 검증하기 어렵고, 은둔과 여타의 변수들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실업 표본 및 장기 구직기간 구간에서는 표본 수가 제한될 수 있어, 구직기간별 은둔확률 추정치의 불확실성(표준오차 확대)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함.
- 향후 관련 패널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면, 개인 고정효과 등을 활용해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고, 은둔의 발생과 정책 개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동태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장기 실업은 실업 상태가 12개월 이상인 자

9) 2025.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 기준,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약 14개월

4. 청년 은둔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 기준시점: 2024년

○ 단,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제약될 경우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음.

□ 청년 및 은둔 청년 규모 추정

○ 청년 인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함.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19~34세 사람 수는 2024년 기준 10,403,543명임.

– 단, 영역별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통계자료에서 20~3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연령 범위의 9,948,808명을 청년 인구 수로 조작적 정의함.

<표 4-1> 1세별 청년 인구 수(2024년)

(단위: 명)

연령별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총인구	454,735	503,217	510,928	525,208	601,088	666,185	649,061	679,026
연령별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총인구	704,948	726,209	736,422	744,730	748,119	755,592	713,480	684,595

*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에서 2026.1.7. 인출)

○ 은둔 청년은 청년 삶 실태조사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되 김성아(2025)의 정의를 준용하여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장애나 임신, 출산 등이 아닌 경우로 함.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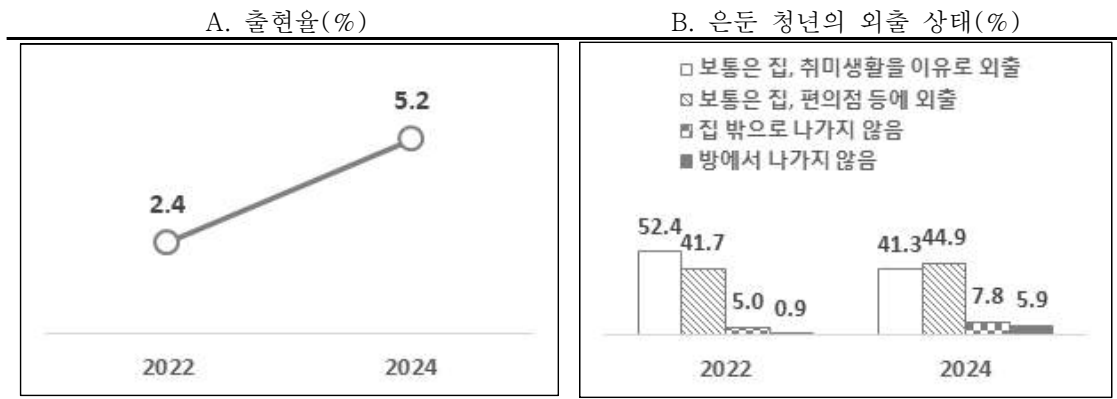
- 외출하지 않는 상태는 데이터 F7번 문항에서 ⑤~⑧번에 해당하고, 외출하지 않은 이유가 F9번 문항에서 ⑤나 ⑥이 아닌 경우임.
- 은둔 청년은 2024년 기준 5.2% 정도로 확인되고, 이를 인구총조사 기준 청년 인구 수에 적용하면 약 54만 명에 해당하는 것임.¹⁰⁾

10) 김성아(2025)는 2022년 대비 2024년 은둔 청년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실제 (은둔 청년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은둔하던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회복과 자립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음.

<그림 4-1>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의 은둔 청년 식별 문항

<p>F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p> <p>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p> <p>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p> <p>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p> <p>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p> <p>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p> <p>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p> </div>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F9 으로 이동</p>	<p>F9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① 학업의 중단으로</p> <p>② 대학 진학의 실패로</p> <p>③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p> <p>④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p> <p>⑤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p> <p>⑥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p> <p>⑦ 기타()</p>
--	--

<그림 4-2> 은둔 청년의 출현율과 외출 상태(2022, 2024년)



* 주: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 원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데이터 세트],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2024.
 * 출처: 김성아, (2025).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47, p.71

□ 비용 추계 방법

○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2023)의 방법을 준용하여 정책 영역과 생산성 영역에서 비용이 발생할 항목을 선정하고, 상대적 위험도를 적용하여 은둔 청년 1인당 사회경제적 총비용을 추계함.

- 다만,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2023)가 은둔 청년 추정 규모에 따른 총비용을 산출했다면, 여기에서는 청년 1인당 은둔화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 정책 비용의 추계 산식 및 자료원

- 정책 비용은 은둔 청년의 기본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및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며, 상세한 산식과 자료원은 다음과 같음.

<표 4-2> 청년 은둔화로 인한 정책 비용 산식과 자료원

비용 항목		내용	
정책 비용	추계산 식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sum_i r_i \times b_i \times (rr_i - 1)$ r_i : 급여종류별 청년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률 b_i : 급여종류별 가구당 평균 수급액, rr_i : 급여종류별 상대적위험도(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i : 급여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실업급여	$r \times b \times (rr - 1)$ r : 청년평균 실업급여수급률 b : 청년수급자 1인당 평균 실업급여액, rr : 상대적위험도(실업급여 수급)
		구직촉진 수당	$r \times b \times (rr - 1)$ r : 청년평균 구직촉진수당 수급률 b : 수급자 1인당 평균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rr : 상대적위험도(구직촉진수당 수급)
	자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구 : 2024년 인구총조사(국가데이터처) • 은둔 청년 비율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청년 수급자수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4년), 2024년 의료급여통계, 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 : 2024년 선정기준 대비 소득인정액을 감한 금액(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의료급여 수급액: 기금부담금을 청년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2024년 의료급여통계) • 주거급여 수급액: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급현황의 평균임차급여액(2023.12. 기준) • 교육급여 수급액: 고등학생 기준 교육급여액 • 실업급여 수급자수, 수급액 : 2024년 고용보험통계표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수, 수급액 : 구직급여 승인원 대비 구직촉진수당 승인원의 비율을 구직급여 수급 청년 인구에 적용한 값(2024년 고용보험통계표) • 상대적위험도(RR)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원자료(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 (2023). 청년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복지정책, 50(4), 123-143. p.131의 표를 준용하되 시의성 있는 자료로 업데이트함.

○ 생산성 비용의 추계 산식 및 자료원

- 생산성 비용은 은둔 청년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경제활동과 비출산, 직무성과 저하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며, 상세한 산식과 자료원은 다음과 같음.

<표 4-3> 청년 은둔화로 인한 생산성 비용 산식과 자료원

비용 항목		내용
생산성 비용	비경제 활동	$np \times (rr - 1) \times e \times y$ np : 청년인구비경제활동비율 rr : 상대적위험도(비경제활동), e : 취업률, y : 1인당연평균시장소득
	추계산식 비출산	$\left\{ \sum_i \frac{w \times f \times (1 - rr) \times p_i \times e_i \times y_i}{(1 + r)^i} \right\} \div L$ w : 은둔청년여성비율, f : 청년여성출산율 rr : 상대적위험도(출산), p_i :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e_i : 연령별취업률, y_i : 1인당 생애연평균 소득, $i = 0, 1, \dots, n$ (실질은퇴연령), r : 할인율, L : 기대여명
	직무 성과 저하	$p \times e \times rr \times y \times pl$ p : 청년인구경제활동참여율, e : 청년인구취업률, rr : 상대적위험도(경제활동참여율), y : 1인당연평균시장소득, pl : 생산성감소율
	자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인구 : 2024년 인구총조사(국가데이터처) 청년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 비율, 취업률 :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비은둔 청년 1인당 연평균 시장소득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둔 청년 및 여성은둔 청년 비율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여성 출산율 : 2024년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1인당 생애 연평균 소득(균등화 평균소득) : 2024년 소득분배지표(국가데이터처) 실질은퇴연령 : Pensions at Glance 2025(OECD) 할인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 2024) 기대여명(22세, 27세, 32세) : 완전생명표(국가데이터처, 2024) 상대적위험도(RR)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산성 감소율 : Michaelson et al.(2017)

* 자료: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 (2023). 청년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복지정책, 50(4), 123-143. p.131의 표를 준용하되 시의성 있는 자료로 업데이트함.

○ 상대적 위험도(Relative Risk, 이하 RR)

- RR은 특정한 상태에 노출되었을 때, 즉 은둔할 때 은둔하지 않을 때에 비해 목표하는 위험 혹은 사건이 실현될 확률임.

<표 4-4> 상대적 위험도 산식과 자료원

산식	$RR = \frac{a/(a+b)}{c/(c+d)}$	구분	은둔	비은둔
		위험 발생	a	c
		위험 미발생	b	d
자료원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자료: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 (2023). 청년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복지정책, 50(4), 123-143. p.131의 표를 준용하되 시의성 있는 자료로 업데이트함.

- 다음 표는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은둔 청년과 비은둔 청년 간 목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표 4-5> 청년 은둔으로 인한 상대적 위험도

구분		은둔	비은둔	전체	
정책	생계급여	수급	0.09	0.76	0.85
		비수급	5.09	94.07	99.15
		전체	5.17	94.83	100.00
	의료급여	수급	0.06	0.78	0.84
		비수급	5.11	94.05	99.16
		전체	5.17	94.83	100.00
	주거급여	수급	0.13	1.07	1.19
		비수급	5.05	93.76	98.81
		전체	5.17	94.83	100.00
	교육급여	수급	0.01	0.15	0.15
		비수급	5.17	94.68	99.85
		전체	5.17	94.83	100.00
	실업급여	수급	0.29	2.96	3.25
		비수급	4.88	91.87	96.75
		전체	5.17	94.83	100.00
구직촉진수당	수급	0.24	2.65	2.89	
	비수급	4.93	92.18	97.11	
	전체	5.17	94.83	100.00	
생산성	지난 1주간 소득활동	비활동	3.41	28.91	32.32
		활동	1.77	65.92	67.68
		전체	5.17	94.83	100.00
	여성 출산의향	있다	1.58	51.24	52.82
		없다	2.79	44.39	47.18
		전체	4.37	95.63	100.00
	경제활동 참가여부	참여	1.90	68.42	70.34
		불참	3.27	26.40	29.67
		전체	5.17	94.83	100.00

* 자료: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바탕으로 집필진 작성

□ 정책 비용 추계 산출 요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고립·은둔 청년도 최소한의 기본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별 정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함.
- 생계급여는 19~34세 청년 수급자 수를 같은 연령대 청년 인구에 대입하여 수급률을 산출하고, 의료·주거·급여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20~34세 수급자 수를 같은 연령대 청년 인구에 대입하여 수급률을 산출함.
- 생계급여 수급액은 2024년 선정기준 대비 소득인정액을 감한 금액을, 의료급여 수급액은 청년 연령대 기금부담금을 청년 수급자 수로 나눈 금

액을, 주거급여 수급액은 2023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급 현황의 평균임차급여액을, 교육급여 수급액은 고등학생 기준 교육급여액을 각각 준용함.

- 은둔 청년과 비은둔 청년의 급여종류별 수급 사건 발생률을 고려해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함.

<표 4-6> 청년 은둔화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용 산출 요소

구분	청년 수급자	청년 인구	청년 수급률	평균 수급액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1
생계급여	211,674	10,403,543	2.0%	5,654,436	2.17	1.17
의료급여	113,407	9,948,808	1.1%	2,489,496	1.41	0.41
주거급여	75,330	9,948,808	0.8%	2,172,000	2.22	1.22
교육급여	241	9,948,808	0.0%	727,000	1.22	0.22

* 주: 자료원은 <표 4-2> 와 같음.

* 자료: 집필진 작성

○ 고용보험

-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 중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정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함.
-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각각 20~34 수급자 수를 확인하고, 이를 같은 연령대 청년 인구 수에 대입하여 수급률을 산출함.
- 다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수는 구직급여 순인원 대비 구직촉진수당 순인원의 비율을 구직급여 수급 청년 인구에 적용한 값을 활용함.
- 실업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평균 수급액은 2022년 고용보험통계표에서 해당 연령대 수급자에 대한 급여 총액을 순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금액을 계산함.
- 은둔 청년과 비은둔 청년의 실업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사건 발생률을 고려해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함.

<표 4-7> 청년 은둔화로 인한 고용보험 비용 산출 요소

구분	청년인구	수급자 수	청년 수급률	평균 수급액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1
실업급여	9,948,808	333,559	3.4%	6,906,951	1.80	0.797
구직촉진수당	9,948,808	21,093	0.2%	5,062,460	1.66	0.661

* 주: 자료원은 <표 4-2> 와 같음.

* 자료: 집필진 작성

□ 생산성 비용 추계 산출 요소

○ 비경제활동

- 은둔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생산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함.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도출한 20-34세 청년의 5세 연령집단별 취업률을 비경제활동비율에 연령집단별 인구 가중치를 고려해 청년의 비경제활동비율을 산출함.
- 은둔 청년과 비은둔 청년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률을 고려해 상대적 위험도를 산출함.
- 20-34세 청년의 취업률을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산출함.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비은둔 청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을 산출함.

<표 4-8> 청년 은둔화와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생산성 비용 산출 요소

비경제활동비율	상대적 위험도	상대적 위험도-1	취업률	(비은둔 청년) 1인당 연평균 소득
28.4%	2.16	1.16	95.3%	26,746,460

* 주: 자료원은 <표 4-3> 과 같음.

* 자료: 집필진 작성

○ 비출산

- 은둔하면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이 유발하는 생산성 비용을 산출하는 데에 다음의 요소를 고려함.
- 5세 집단별 인구 수를 활용해 19-34세 청년의 연령집단별 구성비를 산출함.
- 은둔 청년 중 여성의 비율은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함.
- 청년 여성의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의한 ‘모의 연령별 출산율(각세)’ 자료를 이용하되, 1세 연령별 인구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함.

- 상대적 위험도는 여성 은둔 청년과 여성 비은둔 청년 출산 의향의 발생률을 고려해 산출함.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 5세 집단별로 산출함.
- 출산한 자녀가 전 생애에서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24년 기준 생애 평균 시장소득을 적용함.
- 성별 실질 은퇴연령은 OECD에서 발간하는 Pensions at a Glance 2025에서 확인하여 적용함.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2024년 기준 할인율을 적용함.
- 국가데이터처의 완전생명표(1세별) 자료에서 20세부터 5세 연령집단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22세, 27세, 32세의 기대여명을 활용함.

<표 4-9> 청년 은둔화와 비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비용 산출 요소

구분	인구 수	인구 구성비	은둔 청년 중 여성 비율	청년 여성출산율	상대적 위험도	1-상대적 위험도
19-24세	3,261,361	31.3%	40.5%	1.1	0.67	0.33
25-29세	3,495,666	33.6%	38.2%	7.0		
30-34세	3,646,516	35.1%	42.3%	24.3		

구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취업률	생애 평균 시장소득	실질은퇴연령		할인율	1+할인율	기대여명
				남성	여성			
20-24세	45.1%	93.6%	47,180,000	67.4	69.6	4.5%	104.5%	62.1
25-29세	72.5%	94.4%	47,180,000	67.4	69.6	4.5%	104.5%	57.2
30-34세	80.4%	96.9%	47,180,000	67.4	69.6	4.5%	104.5%	52.4

* 주: 자료원은 <표 4-3> 과 같음.

* 자료: 집필진 작성

○ 직무성과 저하

-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20-34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을 각각 산출함.
- 은둔 청년과 비은둔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를 고려해 상대적 위험도를 계산함.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비은둔 청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을 산출함.

- 은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활력이 저하되는 생산성 감소율은 Michaelson et al.(2017)에서 제시한 비율을 준용함.

<표 4-10> 청년 은둔화와 직무성과 저하로 인한 생산성 비용 산출 요소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청년인구 취업률	상대적위험도	(비은둔 청년) 1인당 연평균 소득	생산성 감소율
68.3%	95.3%	50.9%	26,746,460	1.3%

* 주: 자료원은 <표 4-3> 과 같음.

* 자료: 집필진 작성

□ 청년 은둔화의 사회경제적 총비용 추계 결과

- 청년 은둔화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책 비용과 생산성 비용을 합산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청년 1인당 연간 약 980만 원으로 추계됨.
- 2024년 은둔 청년 비율 5.2%를 인구총조사에 적용한 추정 규모를 적용하면 청년 은둔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 3천억 원에 달함.

<표 4-11> 청년 은둔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결과

구분			1인당 평균(원/연)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4,367
		의료급여	11,662
		주거급여	20,133
		교육급여	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4,577
		구직촉진수당	7,097
생산성	비경제활동		8,398,358
	비출산		958,288
	직무성과 저하		115,239
합계(A)			9,829,725

구분	평균(원/연)
은둔 청년 추정 규모(명)(B)	537,863
청년 은둔화 총 비용(=A×B)	5,287,045,377,675

* 자료: 집필진 작성

5. 결론 및 함의

□ 2025년 기준 중앙정부에 의한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이 청년미래 센터를 거점으로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임.

○ 2025년 시범사업 국비 예산은 16억 원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70%)을 고려하면 약 23억 정도 규모임(보건복지부, 2025.1., p.49).

- 시범사업 예산은 지역별 전담인력 8명씩 채용하는 인건비를 포함함.

○ 시범사업은 연간 고립·은둔 청년 320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 기준 약 670명이 신청하여 사업에 참여함(김성아, 2025, p.78).

-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은둔 성향이 12.3% 감소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일부 증가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변화를 보임([그림 5-1] 참조).

○ 산술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고립·은둔 청년 1인당 약 340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임(<표 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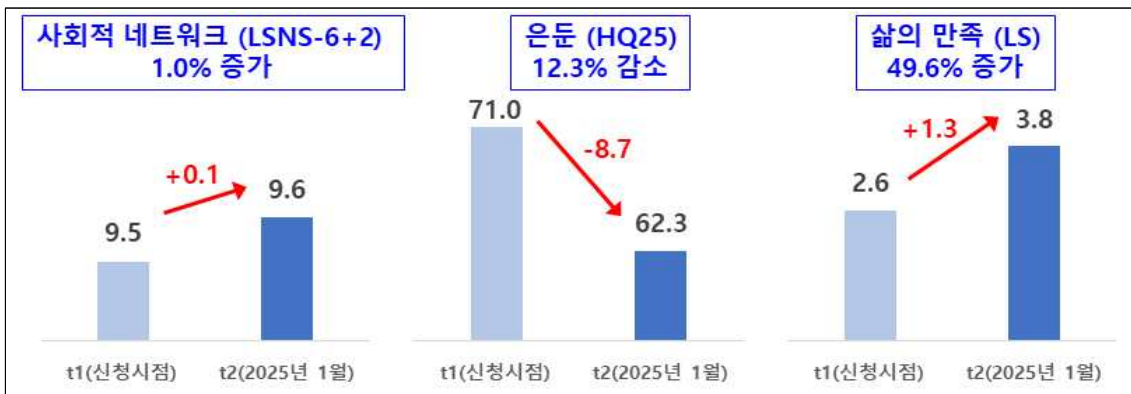
<표 5-1> 고립·은둔 청년 1인당 지원사업 예산

국비(억 원)	총예산(억 원)	고립·은둔 청년(명)		목표치 고려 1인당 예산(원/년)	참여자 기준 1인당 예산(원/년)
		목표치	참여자		
16	23	320	668	7,142,857	3,421,728

* 자료: 집필진 계산

<그림 5-1> 시범사업 참여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네트워크, 은둔, 삶의 만족 변화

(단위: 점)



* 주: t1은 신청 시점 기준이고, t2는 결과 지표 2차 조사에 의한 사후 응답값으로 2025년 1월 기준임.

* 출처: “청년복지 사업 기반 및 성과 평가 기초연구”, 김성아 외, 2025.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07.

- 청년의 은둔을 완화하는 정책은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고립의 연속적 상태뿐만 아니라 ‘쉬었음’ 상태와 이어지는 위기의 경로에서 설계되어야 함.
 - ‘쉬었음’-고립·은둔의 단계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궤적에서 취약성을 순차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쉬었음이 고립과 은둔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단절해야 함.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쉬었음 청년 지원사업은 고유한 전문성을 확보하되, 청년 관점에서 회복과 위기 심화의 경로에서 연속적으로 설계해야 함.
 - 관련 부처와 지역 단위 사업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청년정책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야 함.
 - 은둔 청년은 전문인력이 밀착사례관리 지원하여 일상회복과 관계형성에도모하도록 전담조직(보건복지부 청년미래센터)과 지원사업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적극 확대함.
 - 지역별 공동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며, 일상 루틴을 재표준화하고 안전한 타인과의 관계 연습을 통해 독립 의지를 회복함.
 - 사회적 근육 재활을 위한 맞춤형 일경험으로 효능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경제적 독립을 설계함.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동료 활동가 양성과 사회적 창업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
 - ‘쉬었음’ 청년은 쉬었음이 비자발적이거나 그 상태를 벗어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구직 의욕 고취와 사회적 자활을 지원하되,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현행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취업형 일경험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함.
 - 기업 문화 컨설팅 등 청년 재취업 후 직장 안착과 고립 방지를 위하여 온보딩(on-boarding) 지원 체계화
 - 일하며 자신의 소득으로 금융 및 실물 자산을 형성함으로써 이행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표 5-2〉 청년의 ‘쉬었음’-고립-은둔 단계별 정책 과제

단계	정책 과제
고립·은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회복 및 관계형성을 위한 밀착사례관리 및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 공동생활로 루틴 표준화와 안전한 타인과의 관계 연습 및 독립 의지 회복 · 맞춤형 일경험으로 효능감 회복과 진로 탐색 및 경제적 독립 설계 · 고립·은둔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동료활동가 양성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용한 사회적 창업
⇕	
쉬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의욕 고취 및 사회적 자활 지원을 위한 쉬었음 청년 지원사업 고도화(청년도전지원사업) · 취업형 일경험으로 실무 역량 강화와 경력 축적 · 취업 후 고립 방지를 위한 직장 온보딩(on-boarding) 지원 · 생애 자산형성 지원(①청년미래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금융자산 형성 지원, ②주택청약 및 공공주택 확대 등 실물자산 형성 지원)

* 자료: 집필진 작성

□ 은둔화로 인한 청년 1인당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연간 약 980만 원, 2024년 기준 총 5조 3천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음(〈표 4-11〉 참조).

□ 은둔 청년 1인당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청년 1인당 지원사업 예산을 초과하므로,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은 효용이 비용을 압도함.

○ 청년기 고립·은둔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고 중장년과 노년기 고립·은둔으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상흔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은 예방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김성아, 2023).

○ 결국,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은 소모적이라기보다 청년 은둔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 산출한 청년 은둔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정책 비용과 생산성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년 당사자의 신체·정신건강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최영준 외, 2023) 및 지원사업 운영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부가 가치뿐만 아니라 현세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완화와 사회 및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가족의 고립 예방 등 계량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가 가치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대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외문헌

- 기획재정부, (2025.7.3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 790호(2025.7.30. 일부개정)
- 국무조정실, (2025.3.11.).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3.3.6.).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 김성아, (2025). 청년 은둔 양상의 변화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47, 68-83.
- 김성아, 강예은. (2025).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아래미, 최영준, 김성아, (2023). 청년 은둔의 사회경제적 비용, 사회복지정책, 50(4), 123-143.
- 보건복지부, (2025.1.).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영준, 한은아, 김아래미, 김성아, 임소현, 이한빈, 최유리, (2023).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청년재단,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안선경, 김소연, 김국중 (2025). 고립은둔 청년의 성인기 후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화, 보건사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이찬미, 장경철, 장혜진, 박유경, 이수아.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5). World Happiness Report 2025. 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re.
- Michaelson. J., Jeffrey, K. and Abdallah. S., (2017). The Cost of Loneliness

to UK Employers. New Economics Foundation.
OECD (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e40274c1-en>.
C. I. Bliss (1934). The Method of Probits. Science, 79(2037), 38-39.
D. R. Cox (1958). The regression analysis of binary sequence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20(2), 215-242.

데이터베이스

교육부. (2024.1.1.).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부고
시 제2023-42호(2023.12.28.,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의료급여통계([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brdScnBltno=4
&brdBltno=2429](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5010000&brdScnBltno=4&brdBltno=2429)에서 2026.1.8. 인출)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
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
3Flist_id%3DB1A_26%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
DE5052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
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
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B1A_26%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E5052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
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
3Flist_id%3DB1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A9
002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
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
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list_id%3DB12%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DA9002S%26vw_cd%3DMT_ZTITLE%26orgId%3D101%26path%3D%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26conn_path%3DMT_ZTITLE%26itm_id%3D%26lang_mode%3Dko%26scrId%3D%26))
국가데이터처.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
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3)에서 2026.1.8.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
blId=DT_1B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에서 2026.1.8.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인구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B81A2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2&conn_path=I3)에서 2026.1.8.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4년 인구총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에서 2025.1.8. 인출)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LF05&conn_path=I3에서 2026.1.8. 인출)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지급현황의 평균임차급여액(2023.12. 기준)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ingBenefitView.do>에서 2026.1.8. 인출)

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자 수(<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pageIndex=2&datsClCrit=WS&datsClNo=1013&pClNo=&datsNo=55>에서 2026.1.8.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고용보험통계연보(<https://www.keis.or.kr/keis/ko/bbs/124/detail.do?pstSn=64788&pageIndex=1&searchCl1=2&pageItm=10&searchOrderSort=0&searchGbn=0>에서 2026.1.8. 인출)

* 생산성 감소율 : Michaelson, J., Jeffrey, K. and Abdallah. S. 2017. “The Cost of Loneliness to UK Employers” . New Economics Foundation.

[부록] 결정요인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

□ (강건성 검증①) 분석표본 대상 중 임신·출산·장애로 인한 은둔 응답 표본을 제외 후 분석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증①)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회귀결과

구분	변수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취업 관련	구직기간	0.026 (0.011) **	0.026 (0.011) **	0.027 (0.011) **	0.026 (0.011) **
	실업	0.844 (0.119) ***	1.024 (0.123) ***	0.842 (0.118) ***	1.020 (0.123) ***
	비경제활동	0.734 (0.058) ***	0.929 (0.067) ***	-	
	↳ 쉬었음	-	-	0.961 (0.070) ***	1.151 (0.078) ***
	↳ 쉬었음 외	-	-	0.584 (0.070) ***	0.780 (0.076) ***
	2차 노동시장	-	0.457 (0.073) ***	-	0.452 (0.073) ***
인간관계 관련	사회지지체계부족	0.442 (0.092) ***	0.437 (0.093) ***	0.424 (0.093) ***	0.419 (0.094) ***
	교류부족	0.524 (0.063) ***	0.522 (0.063) ***	0.514 (0.063) ***	0.513 (0.063) ***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1)	0.082 (0.048) *	0.098 (0.048) **	0.070 (0.048)	0.086 (0.049) *
	연령1 (25~29세)	0.211 (0.069) ***	0.234 (0.069) ***	0.216 (0.069) ***	0.239 (0.069) ***
	연령2 (30~34세)	0.245 (0.075) ***	0.278 (0.077) ***	0.249 (0.076) ***	0.283 (0.077) ***
교육	학력1 (대학 재학·휴학=1)	-0.394 (0.085) ***	-0.412 (0.083) ***	-0.336 (0.086) ***	-0.357 (0.084) ***
	학력2 (대학 졸업 이상=1)	-0.192 (0.061) ***	-0.159 (0.061) ***	-0.184 (0.062) ***	-0.152 (0.062) **
가구 환경	ln(균등화 가구 소득)	-0.359 (0.072) ***	-0.310 (0.071) ***	-0.349 (0.072) ***	-0.300 (0.071) ***
	ln(균등화 가구 자산)	-0.071 (0.025) ***	-0.073 (0.025) ***	-0.067 (0.025) ***	-0.069 (0.025) ***
	부모동거 (부모동거=1)	0.333 (0.058) ***	0.318 (0.059) ***	0.312 (0.059) ***	0.298 (0.060)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4,905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①)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구분	경제활동상태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취업 관련	실업 초기(구직 1개월)	0.154 (0.024) ***	0.155 (0.024) ***	0.153 (0.024) ***	0.154 (0.024) ***
	비경제활동	0.102 (0.006) ***	0.102 (0.006) ***	-	-
	└ 쉬었음	-	-	0.181 (0.014) ***	0.181 (0.014) ***
	└ 쉬었음 외	-	-	0.072 (0.006) ***	0.072 (0.006) ***
	취업	0.028 (0.002) ***	-	0.027 (0.002) ***	-
	└ 1차 노동시장	-	0.019 (0.002) ***	-	0.019 (0.002) ***
	└ 2차 노동시장	-	0.051 (0.005) ***	-	0.051 (0.005)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4,905

○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①)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경제활동 상태	구직기간 (단위: 개월)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실업	1개월	0.154 (0.024) ***	0.155 (0.024) ***	0.153 (0.024) ***	0.154 (0.024) ***
	6개월	0.185 (0.022) ***	0.185 (0.022) ***	0.185 (0.022) ***	0.185 (0.022) ***
	12개월	0.228 (0.029) ***	0.227 (0.029) ***	0.228 (0.029) ***	0.227 (0.029) ***
	14개월	0.243 (0.034) ***	0.242 (0.034) ***	0.244 (0.034) ***	0.242 (0.034) ***
	18개월	0.275 (0.046) ***	0.273 (0.046) ***	0.277 (0.047) ***	0.275 (0.046) ***
	24개월	0.328 (0.070) ***	0.324 (0.069) ***	0.330 (0.070) ***	0.326 (0.069) ***
	30개월	0.383 (0.095) ***	0.378 (0.095) ***	0.388 (0.096) ***	0.382 (0.095) ***
	36개월	0.442 (0.122) ***	0.435 (0.121) ***	0.447 (0.122) ***	0.440 (0.122) ***
	41개월	0.492 (0.143) ***	0.483 (0.143) ***	0.498 (0.143) ***	0.490 (0.143) ***
	42개월	0.502 (0.147) ***	0.493 (0.147) ***	0.508 (0.147) ***	0.499 (0.147)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4,905

□ (강건성 검정②) 분석표본 대상 중 임신·출산·장애로 인한 은둔 응답 표본을 포함하고, 회귀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교체 후 분석

〈 로지스틱 회귀모형 및 설명변수 〉

$$P(Y=1|X) = \Lambda(X^T\beta), \quad \Lambda(z) = \int_{-\infty}^z \frac{e^{-t}}{(1+e^{-t})^2} dt$$

Y: 은둔 청년(=1), 이외(=0)

X: ln(균등화 가구 소득), ln(균등화 가구 자산), 구직기간×경제활동상태(상호작용항)
경제활동상태, 사회지지체계부족, 교류부족, 성별, 연령, 학력, 부모동거 여부

* 이분산-강건 표준오차 적용해 비대칭 잔차 보정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②)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회귀결과

구분	변수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취업 관련	구직기간	0.045 (0.019) **	0.044 (0.019) **	0.046 (0.019) **	0.045 (0.019) **
	실업	1.704 (0.225) ***	2.117 (0.238) ***	1.703 (0.224) ***	2.116 (0.236) ***
	비경제활동	1.500 (0.120) ***	1.935 (0.141) ***	-	-
	└ 쉬었음	-	-	1.894 (0.138) ***	2.327 (0.158) ***
	└ 쉬었음 외	-	-	1.204 (0.146) ***	1.643 (0.162) ***
	2차 노동시장	-	1.020 (0.158) ***	-	1.016 (0.158) ***
인간관계 관련	사회지지체계부족	0.827 (0.176) ***	0.818 (0.176) ***	0.798 (0.178) ***	0.789 (0.178) ***
	교류부족	1.004 (0.122) ***	1.000 (0.122) ***	0.987 (0.122) ***	0.981 (0.122) ***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1)	0.202 (0.100) **	0.223 (0.101) **	0.172 (0.101) *	0.192 (0.101) *
	연령1 (25~29세)	0.412 (0.141) ***	0.462 (0.141) ***	0.421 (0.142) ***	0.472 (0.141) ***
	연령2 (30~34세)	0.468 (0.157) ***	0.537 (0.158) ***	0.475 (0.158) ***	0.544 (0.158) ***
교육	학력1 (대학 재학·휴학=1)	-0.771 (0.174) ***	-0.786 (0.171) ***	-0.639 (0.176) ***	-0.661 (0.173) ***
	학력2 (대학 졸업 이상=1)	-0.325 (0.124) ***	-0.259 (0.124) **	-0.311 (0.126) **	-0.246 (0.125) **
가구 환경	ln(균등화 가구 소득)	-0.685 (0.135) ***	-0.592 (0.135) ***	-0.663 (0.135) ***	-0.569 (0.135) ***
	ln(균등화 가구 자산)	-0.159 (0.051) ***	-0.160 (0.051) ***	-0.148 (0.051) ***	-0.149 (0.051) ***
	부모동거 (부모동거=1)	0.725 (0.119) ***	0.694 (0.121) ***	0.669 (0.121) ***	0.637 (0.123)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5,098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②)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구분	경제활동상태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취업 관련	실업 초기(구직 1개월)	0.151 (0.023) ***	0.151 (0.024) ***	0.150 (0.023) ***	0.151 (0.023) ***
	비경제활동	0.100 (0.006) ***	0.100 (0.006) ***	-	-
	└ 쉬었음	-	-	0.177 (0.014) ***	0.177 (0.014) ***
	└ 쉬었음 외	-	-	0.070 (0.006) ***	0.070 (0.006) ***
	취업	0.027 (0.002) ***	-	0.027 (0.002) ***	-
	└ 1차 노동시장	-	0.019 (0.002) ***	-	0.019 (0.002) ***
	└ 2차 노동시장	-	0.050 (0.005) ***	-	0.050 (0.005)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5,098

○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②)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경제활동 상태	구직기간 (단위: 개월)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실업	1개월	0.151 (0.023) ***	0.151 (0.024) ***	0.150 (0.023) ***	0.151 (0.023) ***
	6개월	0.180 (0.021) ***	0.180 (0.021) ***	0.180 (0.021) ***	0.180 (0.021) ***
	12개월	0.220 (0.028) ***	0.219 (0.028) ***	0.221 (0.028) ***	0.220 (0.028) ***
	14개월	0.235 (0.033) ***	0.233 (0.032) ***	0.236 (0.033) ***	0.235 (0.033) ***
	18개월	0.266 (0.045) ***	0.264 (0.045) ***	0.268 (0.045) ***	0.266 (0.045) ***
	24개월	0.318 (0.069) ***	0.314 (0.068) ***	0.321 (0.070) ***	0.317 (0.069) ***
	30개월	0.374 (0.097) ***	0.369 (0.096) ***	0.379 (0.097) ***	0.373 (0.096) ***
	36개월	0.434 (0.126) ***	0.427 (0.124) ***	0.440 (0.126) ***	0.433 (0.125) ***
	41개월	0.485 (0.149) ***	0.477 (0.148) ***	0.493 (0.149) ***	0.485 (0.148) ***
	42개월	0.496 (0.153) ***	0.487 (0.152) ***	0.504 (0.154) ***	0.495 (0.152)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5,098

□ (강건성 검정③) 분석표본 대상 중 임신·출산·장애로 인한 은둔 응답 표본을 포함하고, 회귀모형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교체 후 분석

○ 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③)청년 은둔화 결정요인 분석: 회귀결과

구분	변수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계수	계수	계수	계수
취업 관련	구직기간	0.045 (0.019) **	0.044 (0.019) **	0.046 (0.019) **	0.044 (0.019) **
	실업	1.743 (0.226) ***	2.156 (0.238) ***	1.739 (0.224) ***	2.152 (0.237) ***
	비경제활동	1.575 (0.122) ***	2.011 (0.142) ***	-	-
	↳ 쉬었음	-	-	1.945 (0.138) ***	2.378 (0.158) ***
	↳ 쉬었음 외	-	-	1.287 (0.148) ***	1.728 (0.164) ***
	2차 노동시장	-	1.029 (0.158) ***	-	1.023 (0.158) ***
인간관계 관련	사회지지체계부족	0.856 (0.179) ***	0.845 (0.179) ***	0.819 (0.181) ***	0.809 (0.181) ***
	교류부족	1.036 (0.123) ***	1.032 (0.123) ***	1.022 (0.122) ***	1.016 (0.122) ***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1)	0.163 (0.100)	0.183 (0.101) *	0.139 (0.101)	0.159 (0.101)
	연령1 (25~29세)	0.444 (0.142) ***	0.494 (0.141) ***	0.450 (0.142) ***	0.501 (0.142) ***
	연령2 (30~34세)	0.534 (0.158) ***	0.603 (0.158) ***	0.536 (0.158) ***	0.606 (0.159) ***
교육	학력1 (대학 재학·휴학=1)	-0.837 (0.174) ***	-0.848 (0.171) ***	-0.708 (0.177) ***	-0.727 (0.173) ***
	학력2 (대학 졸업 이상=1)	-0.332 (0.124) ***	-0.315 (0.124) **	-0.367 (0.125) ***	-0.301 (0.125) **
가구 환경	ln(균등화 가구 소득)	-0.706 (0.136) ***	-0.612 (0.136) ***	-0.686 (0.136) ***	-0.593 (0.136) ***
	ln(균등화 가구 자산)	-0.158 (0.051) ***	-0.159 (0.051) ***	-0.148 (0.051) ***	-0.149 (0.051) ***
	부모동거 (부모동거=1)	0.716 (0.120) ***	0.685 (0.122) ***	0.666 (0.122) ***	0.634 (0.123)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4,905

○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③) 경제활동상태별 청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경제활동 상태	구직기간 (단위: 개월)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실업	1개월	0.153 (0.024) ***	0.154 (0.024) ***	0.153 (0.024) ***	0.153 (0.024) ***
	6개월	0.182 (0.022) ***	0.182 (0.022) ***	0.182 (0.022) ***	0.182 (0.022) ***
	12개월	0.222 (0.028) ***	0.221 (0.028) ***	0.223 (0.028) ***	0.222 (0.028) ***
	14개월	0.236 (0.033) ***	0.236 (0.033) ***	0.238 (0.033) ***	0.237 (0.033) ***
	18개월	0.268 (0.046) ***	0.266 (0.045) ***	0.270 (0.046) ***	0.268 (0.045) ***
	24개월	0.319 (0.070) ***	0.315 (0.069) ***	0.322 (0.070) ***	0.318 (0.069) ***
	30개월	0.374 (0.097) ***	0.369 (0.096) ***	0.379 (0.098) ***	0.374 (0.097) ***
	36개월	0.433 (0.126) ***	0.427 (0.125) ***	0.439 (0.127) ***	0.432 (0.126) ***
	41개월	0.483 (0.150) ***	0.476 (0.148) ***	0.491 (0.150) ***	0.483 (0.149) ***
	42개월	0.494 (0.154) ***	0.486 (0.153) ***	0.501 (0.154) ***	0.493 (0.153)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4,905

○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강건성 검정③)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별 은둔 확률 추정 결과

구분	경제활동상태	모형①	모형②	모형③	모형④
취업 관련	실업 초기(구직 1개월)	0.153 (0.024) ***	0.154 (0.024) ***	0.153 (0.024) ***	0.153 (0.024) ***
	비경제활동	0.103 (0.006) ***	0.103 (0.006) ***	-	-
	↳ 쉬었음	-	-	0.180 (0.014) ***	0.180 (0.014) ***
	↳ 쉬었음 외	-	-	0.073 (0.006) ***	0.073 (0.006) ***
	취업	0.027 (0.002) ***	-	0.027 (0.002) ***	-
	↳ 1차 노동시장	-	0.019 (0.002) ***	-	0.019 (0.002) ***
↳ 2차 노동시장	-	0.051 (0.005) ***	-	0.051 (0.005) ***	

* 자료: 집필진 작성

* 유의수준 : * p < 0.10, ** p < 0.05, *** p < 0.01, 표본크기: 14,905